

2022

01

통권 461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2년 1월 3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관련 기사 32면)



2021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3주기를 맞아 곽배희 소장과 직원들이 국립현 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였다. (관련 기사 32면)

- 4 • 새해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총결산
- 10 • 발자취를 따라 | 김춘봉 이사 영면에 부쳐
- 14 • 발자취를 따라 | 김주수 교수 영면에 부쳐
- 18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 20 • 2022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 23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30 • 결혼과 인생(223) 만화일기
 - 사소한 행복 _ 장차현실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아프리카바이올렛>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은 ‘희망’이기에 인내하는 가운데 소통과 배려를 다 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판도라의 상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생각합니다. 신화에서 온갖 것을 봉인한 상자를 받게 된 여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감추어 두었던 온갖 재난과 질병이 튀어나와 사망으로 흩어졌고 그 이후 사람들은 재난과 질병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상자를 열른 단아 ‘희망’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신화와 전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무엇을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2년여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인류 전체에게 다가온 재난 앞에서 처음에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논란 속에서도 인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우리나라도 추가 접종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개발과 투약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분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담소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함께 견뎌내고 이 엄혹한 시기를 더불어 통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상담 자체를 전면 중단한 시기도 있었고 심포지엄도 전혀 열지 못했으나 2021년에는 거의 쉽 없이 상담을 진행했고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법률구조, 가족법과 관련한 심포지엄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담소를 방문하기 위해 체온을 재고,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서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때로 서글픈 심정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이나 여전히 법률구조가 절실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를 더 간절히 깨닫게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에 어려움 속에 서로를 다독이며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배웁니다.

이러한 간절함 앞에서 상담소는 우리 사회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버팀목으로써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담소는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과 가족법개정운동에 큰 언덕이 되어 주셨던 두 분 어른을 잃었습니다. 상담소 개설 당시부터 함께 해 주셨던 김춘봉 이사님과 가족법개정운동의 선두에 계셨던 김주수 교수님입니다.

두 분을 잃은 아픔과 아쉬움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가르침대로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 그 큰 뜻을 이어갈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김춘봉 이사님과 김주수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임인년 새해, <가정상담>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아울러 빕니다.



특집

202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총결산

1월

- 4일 시무식
5일 주한 이스라엘 아키바 토르 대사와 배우자 나옴 토르 박사
본소 방문



- 19일 본소 변호사 회의
24일 본소 자원봉사자 소니아 스트론(이선희) 선교사 별세
28일 서울권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의(ZOOM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5,250 건

2월

- 4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와 자택
출산인 경우 출생신고 등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5일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과 정현미 법학전문대학원장 본소 방문



- 17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 19일 CBS FM 상담소 라디오 광고 신규 멘트 녹음/
곽배희 소장

24일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본부장 본소 방문
 26일 정기 전기 이사회
 「가정폭력 HOW」 유튜브 영상 서비스 시작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5,348 건

3월

1일 CBS FM에서 신규 상담소 광고 송출 시작
 11일 주간조선과 본소 2020년도 이혼상담 통계 관련 인터뷰/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30일 2021년도 정기총회



31일 가정폭력예방지침서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개정·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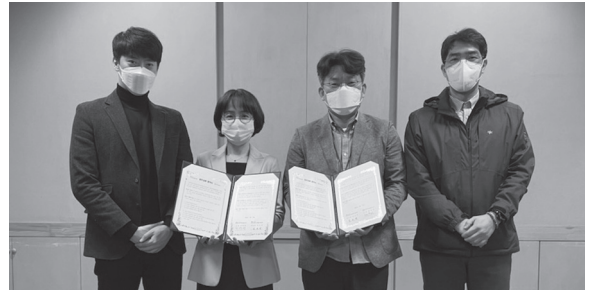
본소 총 상담 6,561 건

4월

5일 상담소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 개설
 6일 EBS 일산 스튜디오에서 'EBS 초대석' 촬영/곽배희 소장
 9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부 방문단 본소 방문 및 간담회 실시



26일 서울시립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본소 총 상담 6,005 건

5월

11일 직원재교육으로 영화 <카사블랑카> 감상



17일 서울가정법원 방문 및 김인겸 법원장과 면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6일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설명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과장
 27일 직원재교육으로 배인구 변호사 「가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 강의



본소 총 상담 5,406 건

6월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이행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

위원



- 18일 기획재정부 예산설명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과장
- 25일 본소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
최



본소 총 상담 5,763 건

7월

- 20일 임시 이사회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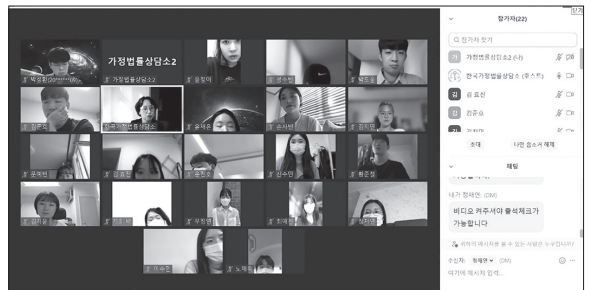
본소 총 상담 5,419 건

8월

- 16일 조선일보와 본 상담소 2020년 이혼상담 통계 관련 인터뷰/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3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
무협약 체결
- 24일 임시 총회



- 26,30일 본소 자원봉사학생 교육/조은경·박상진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779 건

9월

- 2일 여성가족부 '2021년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현
장점검
- 7일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강의(비대면)/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2021년 면접교
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간담회(비대면)/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공공·생활정보 연계 서비스
시작
- 16-29일 청렴 문구 공모전
- 17일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청렴 편지' 발송

23일 1인 1개 청렴 화분 키우기 행사 및 청렴 캠페인



29일 1월부터 전국업무협력기관과 협약체결, 9월 29일 기준 16개 기관과 체결 완료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5,199 건

10월

2일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가정폭력관련법 적용 실제' 강의(비대면)/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5,12,19,26일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오리엔테이션, 상담 참관수업 및 지도/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2일 삼성생명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이혼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혼절차 중 상담 제도화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운용사례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이서원 소장, 천정환 변호사와 본소 객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차연실 상담위원

27일 본소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본소 총 상담 5,004 건

11월

2,9,16,23일 이화여대 법전원 리갈클리닉 II 강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9일 본소 객배희 소장, 제56회 전국여성대회 '김할란 여성지도자상' 수상



24,26일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25일 정기 후기 이사회

본소 총 상담 6,007 건

12월

2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상담소 제작 유튜브 동영상 시사회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적약자의 의료수급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식

14일 본소 변호사 회의

15일 본소 직원 대상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7일 이태영 선생님 23주기

19일 본소 백인변호사단 김춘봉 이사(변호사) 별세
본소와 함께 호주제 폐지에 앞장 선 가족법 학자 김주수 교수 별세

31일 종무식

본소 총 상담 4,898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상담소 창설부터 함께 한 상담소 역사의 증인



상담소 김춘봉 이사가 지난 2021년 12월 19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김춘봉 이사는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박사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의 인연으로 1956년 상담소 창설 당시부터 자원봉사 상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상담소와 함께 해 왔다.

1956년 8월 25일 상담소 개소식 사진 가운데 내빈석 셋째 줄, 그 전 해인 1955년 변호사 개업을 한 젊은 변호사 시절의 김춘봉 이사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춘봉 이사는 상담소 창설 때부터 자원봉사 상담위원, 이사, 백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의 건축위원장으로 상담소 주요한 역사의 장면마다 깊은 발자취를 남겨 왔다.



지나오신 길

김춘봉 이사는 194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 해군 소령 예편 후 1955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당시 여성법률상담소)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이사, 백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다.

고려합동 대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헌신과 인권옹호에 힘쓴 공로로 1981년 국무총리 표창,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기록이 전하는 김춘봉 이사 ①

나는 해방 후 서울법대 구제학부(舊制學部)에 재학 중이었다. ... 이태영은 서울대학 최초의 여학생이었다. ... 나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6·25전쟁 당시 해군법무장교로 입대하였다가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태영 변호사가 찾아와 자기가 뜻한 바 있어 여성법률상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 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조선 오백 년 동안 여권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여자는 죽어서도 앞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나도 이태영 변호사의 뜻에 동감하여 상담소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대다수 남자 변호사들이 이태영 변호사의 상담소 설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여권신장이냐며 비웃거나 비협조적인 가운데 4, 5명 정도의 변호사가 상담소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상담소는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여성문제연구소 건물 한쪽에 살림을 차리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 3·1절에 명동성당에서 당시 독재정권에 반대하여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태영 변호사는 남편인 정일형 박

사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주인 잃은 상담소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당시 상담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였으므로 나는 이태영 변호사가 없는 상담소를 살리기 위해 상담소 설립 이념에 동조하여 자원하는 변호사를 모집하여 백인변호사단을 조직, 상담소를 유지해 갔고, 그 대표를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 상담소의 58년 역사는 이태영 변호사의 눈물의 역사였다. 지금 생각하니 강한 여성으로 보인 이태영은 눈물이 많은 약한 여성이기도 했다. 나는 이태영 변호사가 눈물 때문에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회의를 옆에서 도와주곤 하였다. 이러한 상담소를 이태영 변호사가 키운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문집(2014) 가운데
김춘봉 이사의 '이태영 변호사와 나' 중에서 발췌



기록이 전하는 김춘봉 이사 ②

김춘봉 변호사는 가정법률상담소를 시작한 1956년 8월 25일부터 나와 함께 35년간 상담위원으로, '백인변호사단'의 대표 변호사로, 이사로 봉사하면서 상담소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꾸준히 돌보아 주고 있는 가장 으뜸가는 은인이다.

그동안 상담소를 이끌어 오면서 겪은 숏한 희로애락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증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내가 굶은

일, 좋은 일을 가리지 않고 부탁할 때마다, 어떠한 요청을 해도 한 번도 사양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 이렇게 귀한 분을 내 가까이에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 이태영 자전적 교유록 『나의 만남 나의 인생』(1991) 가운데
'김춘봉 변호사' 중에서 발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한 김춘봉 이사의 발자취



▲ 1956년 8월 25일 상담소 개소식에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김춘봉 변호사



▲ 1959년 9월 5일 상담소 3주년에서 표창장 받으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강의하는 김춘봉 변호사



▲ 1979년 5월 1일 백인변호사단 창단식



▲ 1982년 2월 22일 상담소 정기총회



▲ 2005년 6월 16일 건축위원장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기공식에서



▲ 2008년 3월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에서



▲ 2008년 3월 26일 신축 기념식에서 공로패 받심



▲ 2012년 12월 18일 정기 후기 이사회



▲ 2016년 3월 14일 백인변호사단 모임에서 ①



▲ 2016년 3월 14일 백인변호사단 모임에서 ②



발자취를 따라 | 김주수 교수 영면에 부쳐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서 자란 사람은
민주 시민이 될 수 없다."**

- 호주제 폐지 축하연의 축하말씀에서



지나오신 길

우리나라 가족법의 대가로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결정적 기여를 해 온 김주수 교수가 지난 2021년 12월 19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김주수 교수는 석사과정에 있던 26세부터 홍익대 강단에 섰으며 석사학위를 받은 1955년 27세에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다.

1963년에는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1964년에는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단독저서로 발간하였다. 경

희대에서 약 20년 가까이 재직하였으며 이후 성균관대로 초빙받아 재직하면서 상담소 이태영 소장과 남녀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를 위한 가족법개정에 나서 법안 작성 위원 등으로 열심히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며 특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연세대학교로 옮겨진 사건이 유명하다.

연세대에서 정년퇴임 후, 1994년 다시 경희대로 돌아와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2005년 3월 2일 드디어 민주주의적 가족법이 우리나라에 탄생하였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봉건적이면서도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가족법 밑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것을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하여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수구 봉건세력과 힘들게 싸워 왔다. 이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1977년과 1990년의 가족법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번의 개정은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통과가 어려웠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을 바로잡는 규정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이 날의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평생의 연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 〈가정상담〉 2005년 3월호 기고문

‘민주주의적 가족법이 드디어 탄생했다’ 중에서 발췌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남녀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를 위한 가족법개정에 결정적 기여

김주수 교수는 법학에 성평등 철학을 견지해 왔으며 1958년 호주제를 담은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1957년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최초로 발표하는 등 가족법 개정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양성평등을 향한 우리나라 가족법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다. 김주수 교수는 실천적 이론가인 법학자로서 우리 민법에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김주수 교수는 195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1995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6대 민간위원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71년에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199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한국 가족법의 대가, 김주수 선생님 영면에 부쳐

지난 12월 19일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영면 소식은 놀라움과 더불어 상담소와 가족법개정운동에 대해 많은 순간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2005년 3월 18일 세종홀에서 열렸던 ‘호주제 폐지 축하연’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축하말씀을 해 주시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김주수 선생님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서 자란 사람은 민주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며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 민주적인 가족제도와 가족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히셨다. 이는 가족법 개정의 산증인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은 우리나라 가족법의 대가로 부계혈통, 남계혈통을 근간으로 해온 우리나라 가족법의 흐름을 수차례에 걸친 가족법개정을 통해 부부평등, 남녀평등의 내용으로 바꾸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법개정운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으로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에서 가족법 즉 친족·상속 편은 제정 당시부터 부계혈통 위주의 남녀차별적 내용으로 시행 이전부터 개정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을 위해 중심 역할을 했고, 김주수 선생님 역시 석사학위를 받은 1955년 27세에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할 때부터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당시 민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1963년의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1964년에는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단독저서로 발간하신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경희대에서 약 20년 가까이 재직하시다 1974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초빙받았다. 성균관대로 가신 이후에도 선생님은 당시 상담소 이태영 소장과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법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가 결국은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연세대학교로 옮기셨는데 이는 지금도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이다.

나의 첫 기억에 남은 선생님은 1970년대 개정 가족법

의 법안 내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시던 열정적인 모습이 다. 그리고 2005년의 호주제 폐지 축하연은 물론 가족법개정운동의 주요한 장면마다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과 상담소의 인연은 1973년 4월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신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6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의 법안작성위원회의 위원 및 1984년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를 비롯하여 가족법개정과 관련한 상담소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상담소와 한마음으로 가족법의 현대화, 인간화에 궤를 같이 하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그 괴리를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주수 선생님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당신이 갖고 닦았던 학문 세계에서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가족법개정운동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참여하셨다. 이러한 선생님의 발걸음은 평생 한결같았으며 그 결과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통해 우리는 양성평등하고 부부평등한 가족법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깊이 있고 냉정하셨으며, 실천에는 적극적인 학자이셨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저희들에게는 더없이 자애로운 어른이셨던 김주수 선생님.

가족법개정에 있어 선생님과 함께 큰 산을 넘어왔으나 완전한 평등,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가족법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선생님이 생전에 보여주신 일관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본받아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정에 쉬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자제분이신 김상용 교수가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고향인 평안남도 성천의 산세를 닮았다는 가평의 양지바른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겨레신문〉 2021년 12월 29일 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한 김주수 교수의 발자취



▲ 1974년 7월 6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위원회> 가족법 개정안 작성 ①



▲ 1974년 7월 6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위원회> 가족법 개정안 작성 ②



▲ 2005년 3월 18일 호주제 폐지 축하연에서 ①



▲ 2005년 3월 18일 호주제 폐지 축하연에서 ②



▲ 2005년 3월 18일 호주제 폐지 축하연에서 ③



▲ 2008년 상담소 창립 50주년 기념 홍보 영화를 위한 인터뷰 말씀에서

동성동본 금혼 철폐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냄

가족법개정운동의 연장선에서 꾸준히 동성동본 금혼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연대를 조직하는 활동을 펼쳐왔던 상담소는 1995년에 들어서면서 그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자 보도진에 둘러싸여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곽배희 당시 본소 부소장

먼저 1995년 4월 10일 상담소는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를 위한 법정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지난 1991년부터 동성동본 금혼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해 온 상담소와 피해 당사자들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피해자 모임의 부부 8쌍이 서울가정법원에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동성동본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대응을 위해 백인변호사단의 김춘봉, 이석태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 날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불복신청 판결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법정투쟁에 들어감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5월 17일 서울 가정법원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10월 30일에는 국회의원 56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혼인특례법’이 국회여성특위 주관으로 제출·통과되었으며 12월 6일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1996년 6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심판제청에 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첫 재판에는 이정주 교수(서울대 분자생물학과), 한봉희 교수(동국대 법학과), 상담소 광배희 부소장이 출석하여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침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위헌 판결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에서도 번번이 제외되었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운동에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30일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34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 철폐에 기여한 공로로 상담소에 감사패를 주기로 결정했고, 상담소를 대표해 광배희 부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편집부



▲▼ 1991년 8월 29일 본소 강당에서 개최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발표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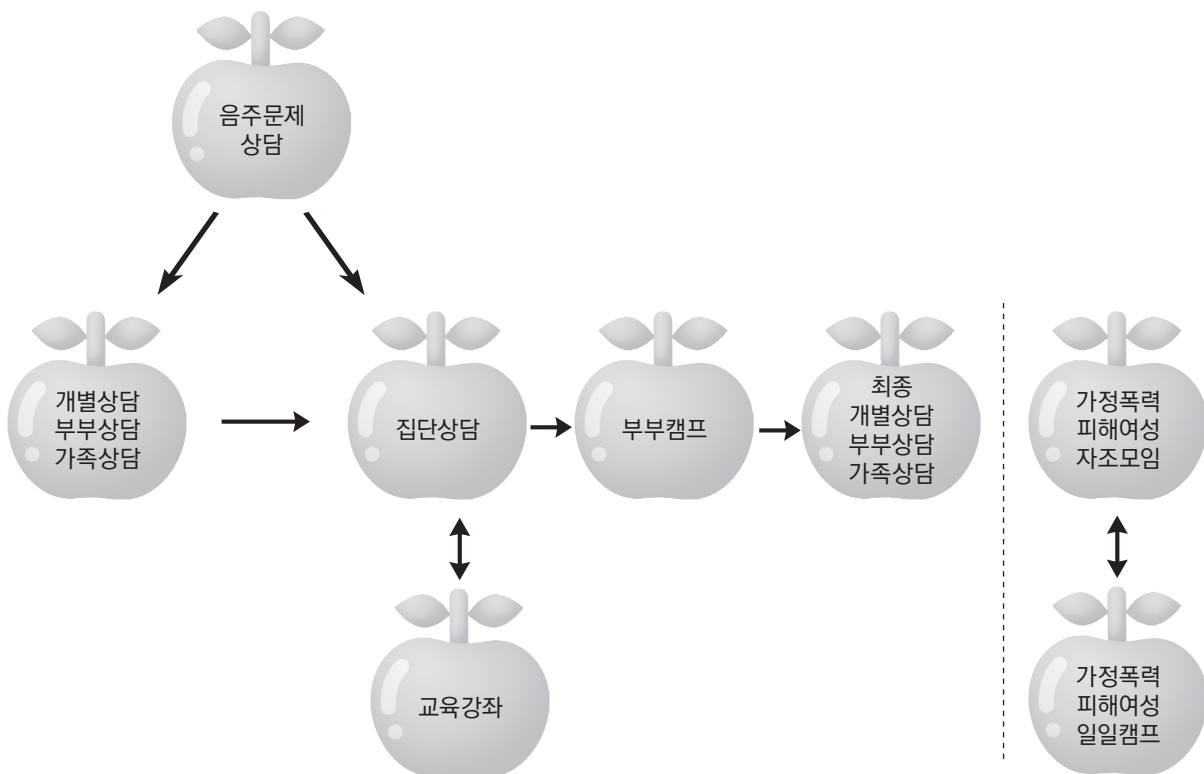
▲ 1995년 4월 10일 개최한 동성동본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모임 기자회견

원칙을 정해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 적절하게 활용할 것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COVID19에 대응하여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별상담과 부부상담은 대면상담으로, 집단상담,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자조모임 등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 일 시 : 연중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일 시 : 연 3회(각 6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1회 : 2/18, 2/25, 3/4, 3/11, 3/18, 3/25 (6회기)
	2회 : 6/10, 6/17, 6/24, 7/1, 7/8, 7/15 (6회기)
	3회 : 10/21, 10/28, 11/4, 11/11, 11/18, 11/25 (6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음주와 트라우마 2회기 : 알코올의 특성 3회기 : 음주와 성인아이 4회기 : 음주와 공동의존 5회기 : 음주와 회복 - 방향과 자원 탐색 6회기 : 음주와 회복 - 자기 들여다보기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집단상담 ②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 진 행 : 정윤경 교수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정윤경 교수



김희진 교수

집단상담 ③

- ▶ 일 시 : 필요시
-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IV.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황순찬 교수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2월 10일	분노의 이해, 화내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 관리연구소)
3월 10일	분노의 관리1, 잘 화내는 법이 있긴 한가요	
4월 14일	분노의 관리2, 화내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5월 12일	분노의 이익, 화를 잘 내면 원하는 걸 얻어요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7월 14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8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3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8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 일 시 : 연 2회
(2022년 4월 9일 ~ 10일 / 11월 12일 ~ 13일)
-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VI.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VII.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 일 시 : 연 1회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음주 상태의 일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충격받아
음주 문제 상담에 적극 참여하면서
해결의 실마리 찾아

2019버2***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6회,
음주문제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자조모임 1회, 일일캠프 1회
피해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2회 등 20회

상담기간

2019. 11. 1. ~ 2020. 10. 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년간 교제하고 3년 전 결혼하였다. 피해자는 쿡 배달사업을 하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일을 도왔다. 2019년 7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재판부는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음주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인정하였다. 자신은 경제 문

제와 설거지 문제로 다툰 것만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 자신이 칼을 들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욕을 많이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넉넉하게 생활비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행위자는 늘 부족하다고 하므로 행위자의 경제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부부 모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기에 상담기간 중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화를 내지 않기, 피해자는 도박하지 않기로 각각 정하였으며, 그 외에 상담자는 행위자에게 절주를 추가과제로 부과하였다.

행위자는 음주문제 상담에 참여하면서 진행자의 강의내용이 좋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 피해자는 초상담 이후 영업장 사정 때문에 상담 기간 상담에 임하기 어려웠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상담에 열심히 임하고 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상담 이후 자신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호칭 변화, 타임아웃 실천, 피해자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절주 노력을 하였다.

행위자는 2020년 1월과 2월 자조모임 및 교육강좌에 참여하고 3월부터 피해자와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악화로 전화상담으로 대체 진행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그동안 절주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문제도 합의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사를 하여 생활이 안정되었고 2021년에는 임신, 출산할 계획도 세웠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주사가 줄었음을 인정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하여 행위자는 사건당시는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8.5점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는 사건당시는 마이너스 10점, 현재는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좋아진 점으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꼽았고 피해자는 대화와 행위자의 배려를 꼽았다. 그리고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 소비썸썸이를 줄이고 큰 소리 내지 않기 등을 계속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부의 각 노력 사항을 정리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3***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5회,
집단상담(비대면) 4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0. 5. 4. ~ 2020. 11. 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34세, 30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9년 9월 사건당일 추석을 앞두고 시가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과일 접시 1개와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손괴하여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결혼 초 피해자와 다투었을 때 기물을 파손하고 폭언을 한 사실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을 인정하고, 자신도 피해자와 다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화난 얼굴에 많이 놀라 이후로는 다투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견을 더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에 수용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본 건 폭력이 심하지 않았기에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바라지는 않았고, 행위자가 상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처음에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 행위자가 이후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안심하였고 자신이 하지 못하던 일을 국가에서 해주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화를 조절하지 못해 힘들었는데 그러한 점이 상담을 통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였고, 행위자의 예민함을 알고 피해자도 조심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상담소에 처음 올 때는 불편하고 부끄러웠지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라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중간점검 결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어떠한 충돌이나 폭력도 없었으며 잘 지내고 있었다. 중기 이후 참여한 집단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종결상담 시 확인 결과, 행위자는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화를 자제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들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가 진정될 것 같다고 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는 10점 만점에 1점, 현재는 9.5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처분을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고 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한 결과 부부간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한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생각에 맞춰 끌고 가려고 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부드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변화를 인정하였다.

2019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0. 3. 4. ~ 2020. 11. 3.

상담경과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이상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에 의하면 사건 이전부터 행위자와 피해자는 과격하게 다투어왔고 이혼하기 위하여 몇차례 법원에 다녀온 적도 있다. 행위자는 부부갈등 원인으로 성격 차이와 성장환경의 차이 등을 꼽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바랐던 바는 음주문제 개선과 잔소리하지 않기였다고 한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2019년 12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집을 나와 지냈으며 2020년 3월 30일 피해자와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합의사항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였던 집의 1/2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자녀(2남, 14세, 9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를 정하였으며 자녀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면접교섭 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행위자는 월급제로 택배일을 하며 수입도 좋은 편이다, 저녁 10시에 출근하고 아침 8시에 퇴근하므로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1차 보호처분 기간 연장 후 상담에 임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

담에 늦게 임한 점을 반성하고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종결상담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위자는 자녀 면접교섭 시 피해자도 동반하여 같이 만난 경우도 있었고 그 때 재결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피해자의 답을 듣지는 못하였다. 행위자는 재결합에 대하여 숙고 중이며 피해자가 적극 원하면 재결합할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아이들과는 긴밀하게 연락할 것이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대비하여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다. 이전에는 매일 1병씩 음주하였지만 지금은 1주일에 1~2회 1병 내지 2병을 마시는 절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 전에는 우울감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약하게 느끼는 변화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과 낚시를 같이 가는 등 어울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행위자는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요인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비양육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등을 이해하고 실천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②

●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Q 문 3 |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상담 권고는 '이혼에 관한 안내'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법원 내에서 전문 상담인의 약 1시간의 1회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상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후 자녀 양육에서

주의할 점, 양육 방법과 전배우자에 대한 태도,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법률과 위의를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혼 전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Q 문 4 | 아내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A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836조의2 제1항), 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서 이혼에 관련된 법률 및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Q 문 5 |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습관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 오다가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더니 남편 쪽에서 협의이혼



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지요?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 시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 문 6 |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 입원을 해야 한데 저는 곧 외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속히 하었으면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었더라도 아내가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 결혼 10년 차에 자녀 둘을 둔 주부입니다. 남편이 각종 대출은 물론 몰래 친척들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합니다. 신혼 때부터 가정생활을 등한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저에게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며 저와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아이들까지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빚을 갚아주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전세보증금을 주셨지만 남편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는 친정아버지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싶으며, 남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귀하의 남편은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나 귀하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2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귀하와 자녀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 생계를 등한시하는 것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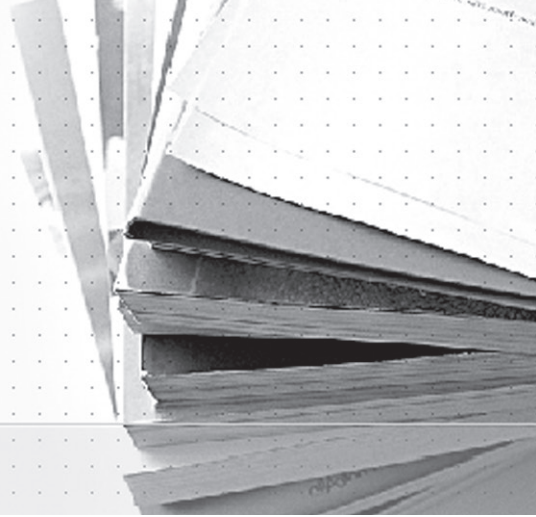
판례에서는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므559 판결). 그리고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므422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 위와 같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그리고 양육사항에 관하여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양육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자는 비양육친에게 자녀가 성년(만19세)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 남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900 판결). 그러므로 귀하에게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아줄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꿈꾸었다. 영어사전에도 올라 있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 ‘재벌’. 그 성취를 위해 재벌 회장들이 했던 각종 범죄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소 판 돈을 훔쳐 나와 반세기 후 소 떼를 몰고 방북한 성공담은 전설이 되었으나 그가 주도했던 노동 탄압, 노동자에 대한 식칼 테러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회사 노조원들의 조합 이기주의만 주야장천 회자 된다. 주로 비슷한 임금 노동자들이나 중소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 같은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변화가 놀랍고 그 속도감에 멀미가 난다. ‘자본’이란 이리도 위대한 것이었다. 모든 곳에서 ‘자본’을 이야기한다. 청년 세대의 양극화 담론에는 경험치에 대한 언급으로 ‘문화자본’이 빠지지 않고, 페미니스트 정치가를 자처하는 여성의 보수 정당 입당을 놓고서는 ‘상징자본’을 언급한다.

자본주의와 성장을 생각해본다. 현재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가장 범지구적인 주제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일 것이다. UN이 강조하고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SDGs’는 진정 가능한 일일까.

기후 위기로 해수면의 상승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일부 해안 도시의 문제일 것이라는 착각, 나아가 기후 위기설 자체가 음모일 뿐이라는 주장 앞에서 AI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기면 인간을 모든 것의 문제 원인으로 보고 인류 멸종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에 힘차게 동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읽게 된 이 책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은이 사이토 고헤이는 1987년 생으로 오사카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부교수로 도이치 기념상을 역대 최연소로 수상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다. 이 책은 그가 현대 사회 위기 진단 및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그는 기후 변화와 경제 격차 등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진단한다. 마르크스가 만년에 열중했으나 『자본』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생태학과 공동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궁극적 도달점 ‘탈성장 코뮤니즘’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세계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현 가능한 제도적, 사회적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고달픈 현실이 불러일으키는 고뇌를 완화해주는 ‘종교’를 가리켜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SDGs는 그야말로 현대판 ‘대중의 아편’이라 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자본이 ‘절대반지’가 된 이 시대에 이 젊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존재 자체가 신선하고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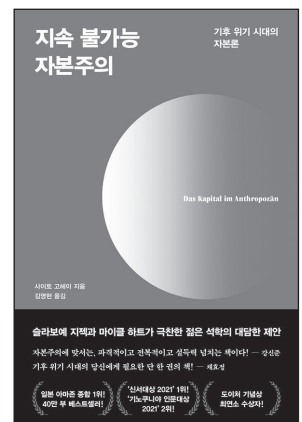
무엇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화의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일본이지만 이 책이 50만 부 팔렸다는 데에서 그 어떤 저력 같은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숙현 편집부장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사이토 고헤이 지음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1





코로나19 펜데믹의
불안이 장기화되며...



고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마치며

법률봉사를 위해 국내의 법률구조기관들을 알아보던 중 어려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는 1956년부터 가정 내 위기에 대한 인식과 여성 인권 및 권리의식 함양에 힘써온 진보적인 곳이기에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동안 상담소에서 이끌어온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계몽 운동과 그를 통해 이뤄낸 성과 및 가족법의 현대화 과정에 대해 배웠고, 이혼 및 가정폭력관련 동영상 교육을 통해 상담소에서의 업무와 상담위원님들의 사명감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전화상담, 준비서면 작성, 사이버상담 실 질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안내 등을 통해 가정사 문제로 고통받다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내담자들의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는 가정에서부터'라는 상담소의 글귀처럼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며, 가정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돕고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생소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주시는 상담위원님들을 통해 진정한 법률가란 단순히 법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임소현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21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자원봉사 해 주신

임소현 변호사

• 학생 자원봉사

김민주, 김민지, 김승현, 김준호, 김지민, 김지윤, 김지현, 김찬우, 김현정1, 김현정2, 김효빈, 노재욱, 류지원, 문예빈, 민지용, 박도윤, 박성환, 박지희, 봉수빈, 손사빈, 오수민, 오지현, 이상희, 우정연, 윤정미, 윤진호, 윤호열, 이상아, 이상지,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승준, 이주연, 장윤아, 장지수, 전우인, 전우정, 정유나, 정채연, 조예원, 조예진, 천윤빈, 최세은, 최예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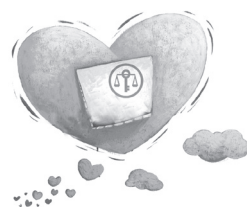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양병희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천정환, 이서원, 김용현,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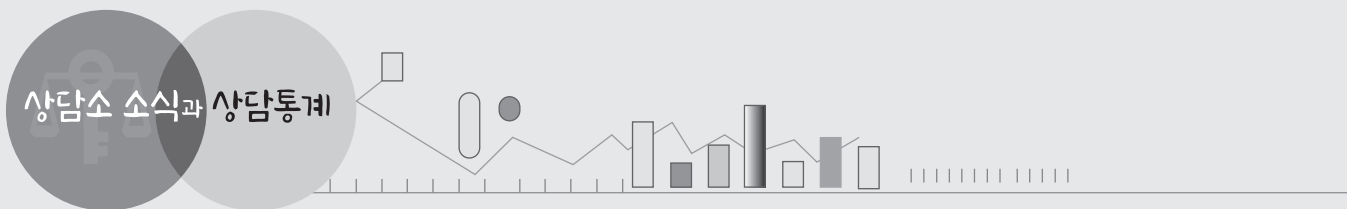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2년 1월 3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박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전 직원들을 치하했다.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는 ‘법률구조 기관인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각각 깊이 있게 돌아보며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자’는 취지로 새해 시작을 독려했다.

상담소의 종무식과 시무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이태영 선생님 23주기 맞아 선생님의 정신 기려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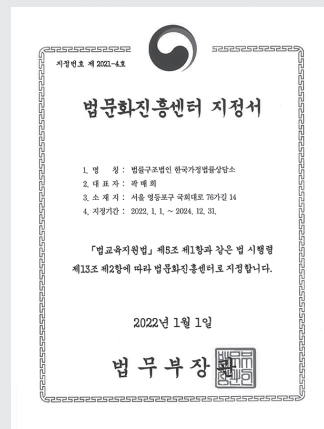
2021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3주기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립현충원 참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헌화만 부탁해야 했으나 올해는 국립현충원 참배가 가능해 박배희 소장과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선생님의 뜻을 기렸다. (관련사진 2면)

김춘봉 이사, 운영후원금 기탁

2021년 12월 19일 영면한 본소 김춘봉 이사(변호사)가 2021년 2월에 이어 영면에 들기 전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운영후원금으로 일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김춘봉 이사는 상담소 창설 당시 상담위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이사와 백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며 상담소에 대해 헌신하였고 이처럼 마지막까지 상담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본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재지정

본소는 2022년 1월 1일자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재지정되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법교육 관련 인력(전문가·자원봉사자) 양성, 학교 교원 등에 대한 법교육 연수, 법교육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본소는 2010년 처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마다 재지정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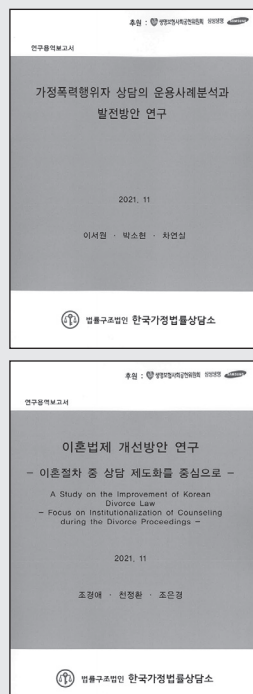
가정법률 상담 교육 동영상 「어떻게 할까요? 법HOW」 후속편 제작,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현재 유튜브에서 방영 중인 본소의 「어떻게 할까요? 법HOW」 동영상 후속편이 지난 11월 제작되어 12월 15일부터 송출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가정법률상담사례에 대해 사례자 인터뷰(대역연기자)와 본소의 변호사, 상담위원 등의 전문가 답변으로 구성된 본소의 「어떻게 할까요? 법HOW」 동영상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2021.12월 현재 누적 시청수가 40,868회에 이르고 있다.

새로 제작한 동영상은 기존의 2편(이혼, 가정폭력) 외에 이혼, 상속, 사실혼, 미성년후견 등 4편의 상담사례를 추가하였다.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검색하거나, ‘어떻게할까요?법HOW’, 혹은 ‘법HOW’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본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법교육과 가정법률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본소 연구용역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본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이혼 절차 중 상담 제도화를 중심으로-」와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운용사례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용역사업에는 외부 연구자인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현정)와 내부 연구자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2021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 겸해



본소의 2021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환 교수의 ‘상속권상실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현소혜 교수의 ‘상속권 상실 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광배희 소장을 비롯한 본소 직원들 및 자원봉사자들(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공동대표),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본소에 ‘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장 및 법률복지를 위한 방역물품’ 전달

지난 해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본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 2018년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및 의료수급권 보장을 위해 본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숙인, 비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에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해 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본소 광배희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수민 본부장, 최선영 부장, 김영성 팀장, 조은희 과장이 참석하였다.



전 직원 대상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본 상담소에서는 12월 15일 7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담당한 김진영 상담위원은 먼저 성희롱, 성폭력 등의 1차 및 2차 피해의 심각성, 국내 및 해외의 성매매 현황 등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후 관련법과 방지를 위한 국내외 정책 모델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어 각 사건 발생 시 접수·조사·처리 절차,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본 상담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고충상담 창구 및 사이버 신고 센터 등에 대한 강의와 설명을 진행하였다.



본소 직원,

비대면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아

본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직원 전체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하였다.

본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소에서는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대나 폭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경각심 등의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확인 하게 되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12월 21, 23일 강서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 및 가족법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6일 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사절차관련 법령분석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당일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공동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17일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또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을 진행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13일 국제존타 32지구 지

구대회의 “코로나 시대의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6일에는 충청북도 내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적양육자 부모교육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원격강의를 하였다. 29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현미 교수가 진행하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의 스톱킹처벌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자문하였다.

12월 6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공동연구회(ZOOM 회의), 17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ZOOM 회의)에 참가하였다. 14일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주최한 형사법자문회의(ZOOM 회의)에 참석하여 가정폭력처벌법 개선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1년 1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898

법률상담 (4,358)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712	3,566	79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94	26	20

• 인터넷 정보 이용 43,882 건

2021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89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5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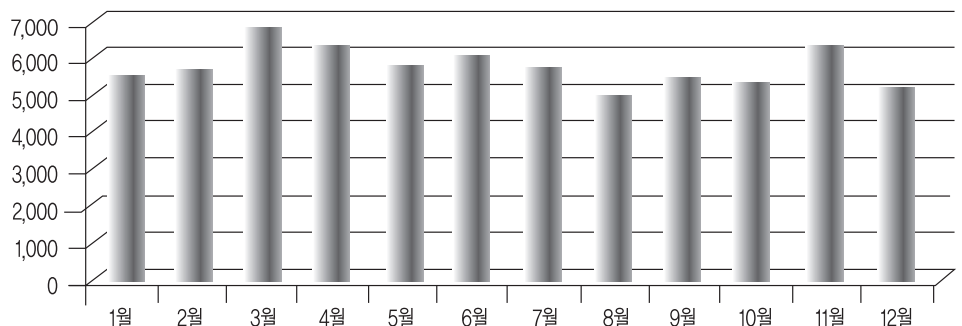
(89.0%), 화해조정 494건(10.1%), 소장 등 서류작성 26건(0.5%), 소송구조 20건(0.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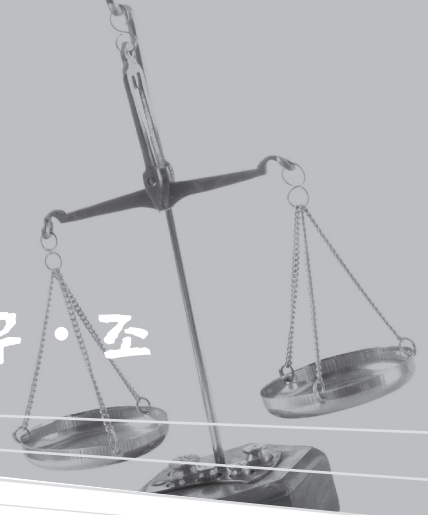
법률상담 4,35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1.1%→1.2%), 위자료·재산분할(9.1%→10.3%), 친권·양육권(4.2%→5.2%), 양육비(7.5%→7.9%), 면접교섭권(2.2%→3.2%), 입양(0.9%→1.1%), 혼인무효·취소(0.4%→0.6%), 이혼무효·취소(0.2%→0.3%), 부양(1.5%→1.6%), 유언·상속(6.6%→

6.9%), 성년후견(2.7%→2.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3%), 채권·채무(0.3%→0.4%), 파산(2.0%→2.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1%), 형사절차(0.2%→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5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12건(16.3%), 전화상담 3,566건(81.8%), 인터넷상담 79건(1.8%),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미혼모인 친모의 사망으로 외조모가 아기 때부터 키우던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21-1-251

담당 : 안순례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46세)은 사건본인(남, 7세)의 외조모로 사건본인이 태어나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청구인의 딸로 미혼모이며, 친부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친모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바로 가출하였는데, 2021. 2. 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더딘 언어발달을 위해 매주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동행하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재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없어 사건본인의 기본적인 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1. 11. 26.)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2. 2. 28.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1. 11. 1. 7.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2. 11. 30.을 시작으로 매년 11. 30.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폭언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한 남편과의 이혼판결**

법률구조 2021-1-282

담당 : 서치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1세)와 피고(남, 40세)는 2008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3세, 3세, 남, 1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2009년에는 원고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는데, 그 후로도 피고의 폭행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계속되었다. 2020년경 코로나 확산으로 피고가 실직한 이후 매일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 2021. 6.경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간다면 피고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어 원고가 이를 나무라자,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더니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하였는데, 2011년경 피고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

더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노래방에서 탕진하였다. 또한 피고는 한 회사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일하다 그만 두기를 반복하여 원고는 친정의 생활비 지원을 받아 사건 본인들과 어렵게 생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11.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 9.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2.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실패와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29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4세)은 태국에 음식점용 숯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 소유 중이던 주택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빚만 짊어지게 되었고,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소유 중이던 주택을 매매해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주택을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이 남아 있어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 지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자리가 공석이니 신청인에게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한 달 이내에 대표를 뽑아 꼭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만 믿은 신청인은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게 화근

이 되어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에도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사장이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서주었다가 연대보증채무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들만 2억 3천만 원에 달했지만 마땅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 근로소득 월평균 2백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변제능력이 없어 장기간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 이에 빚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암판정을 받은 베트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판결**

법률구조 2021-1-314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34세)와 피고(남, 50세)는 2010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피고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행위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원고가 2020. 6.경 비인두암이라는 암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020. 6.경 술에 취해 원고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두 번의 항암치료에 지쳐있던 원고는 안전한 곳을 찾고 싶은 생각에 2021. 1.경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12.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21. 1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43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2세)은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신청인은 생전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다섯 식구의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임대료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가게운영비와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은 고민 끝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좀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더니 결국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는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였다. 이후 마땅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던 신청인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불륜까지 저질러 가정 파탄이 나면서 이혼하였다. 혼자가 된 신청인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일용근로에 의존한 채 저소득에 시달리며 생활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있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평균 70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월 10일, 1월 24일, 2월 14일, 2월 28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 ~ 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2월 24일	행복의 조건
3월 24일	너의 의미
4월 28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6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3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8일	소시오 패시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2월 ~ 12월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2월 10일	분노의 이해, 화내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3월 10일	분노의 관리1, 잘 화내는 법이 있긴 한가요	
4월 14일	분노의 관리2, 화내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5월 12일	분노의 이익, 화를 잘 내면 원하는 걸 얻어요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월 14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9월 8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3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8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가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5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2-3601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겨울 한강이 얼어붙는 시절에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하지만 저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얼지 않는 물이 흐르고
저 찬바람 속에 봄기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며
새해, 새봄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앞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상담소는 가정문제 전문기관으로써
이 어렵고 혼란한 시절에 상담소를 더욱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킴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지킨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소와 함께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각별히 건강과 평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함께 해요! 청렴 실천!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